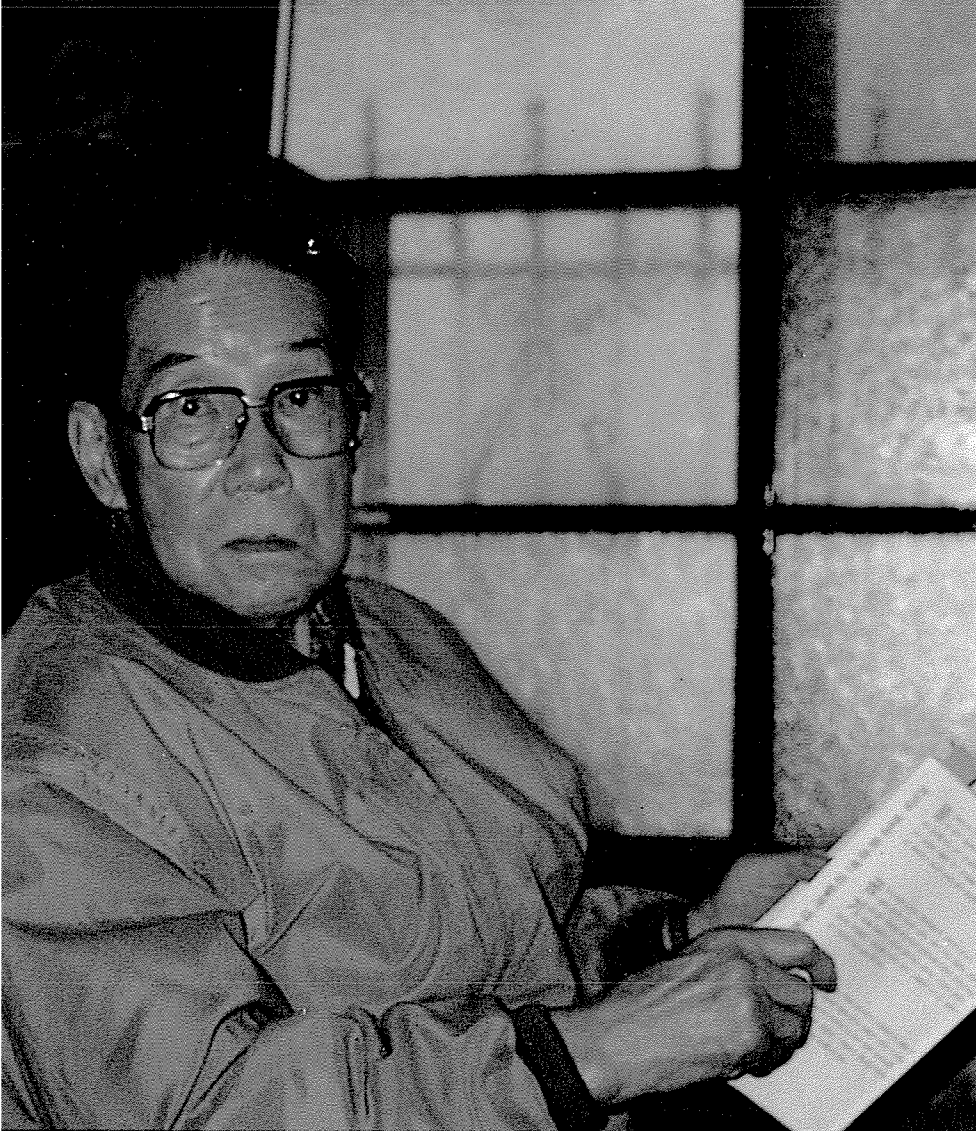


“80평생을 정직하게”



■ 元老와의 대담

대한지질학회 명예회장

金漢台 선생

대담/朴澤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선생님 서재인 것 같은데 트로피와 골프채 등이 많은 걸 보니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서재라기 보다는 공부방입니다. 난 어렸어서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잘 했어요.

잘 하나까 좋아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나이가 좀 들어서에는 골프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젊은이와의 게임에도 자신

젊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해도 항상 이겼지요. 저 트

로피 중의 하나는 홀인원을 쳐서 받은 거예요. 그날따라 홀인원까지 쳐서 아주 기분의 좋았고 사람들이 한턱내라고 해서 흔쾌히 그러마 했는데 그런 후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 50여일 동안 입원해 있었지요. 의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95%는 사망한다고 했어요.

혼수상태로 20여일 지냈으니까 가족들도 각오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쫓겨왔습니다. 91년도의 일인데 그때 이후로는 일체의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직도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요.

나는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여든여덟이지요. 엄친께서는 「장례원전사」직을 맡으셨던 서울의 대지주셨어요. 4남1녀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형과 나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어른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고 몸도 튼튼해서 각종 운동에 능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소화동보통학교(현 청계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칭찬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마 3·4학년 쯤이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산수문제를 써놓고 나 보고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더군요. 칠판 앞에 나와서 우물쭈물 하니까 분필을 던지면서 머리를 팍 쥐어박는 거예요. 그때 양하고 소리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르쳐주지는 않고 때리기부터 하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용산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칼찬 일본인이었고 일본인 학생들도 많았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일본사람들한테 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정신차리고 공부했지요. 틈틈이 취미삼아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한국 신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세단뛰기」서 한국신기록

몇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신기록을 수립하셨습니까?
1926년에 「세단뛰기」에서 13m12cm로 최초의 한국 신기

록을 수립하였지요. 세단뛰기는 홉·스텝·점프의 세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으로, 멀리뛰기와 마찬가지로 수평방향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단계 연속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전진스피드를 유지해야 하지요. 7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기록이 18m 수준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중학교 졸업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서 고등학교, 대학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네, 정신차리고 공부를 하니 성적도 꽤 향상되어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일본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일본 경도 제3고등학교 이과 갑류를 졸업했고 35년에는 일본 경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광물광상학과를 졸업했지요.

일본 유학시절에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스트레스 해소는 운동으로

하숙을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하숙집 주인과 일본인 친구들이 드러내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도 울화가 치밀어 「오냐, 이놈들 두고 봐라」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향수나 갖가지 스트레스를 운동을 해서 풀었지요. 유도 4단에 고등학교 때는 럭비대표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자기네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온 점이 있으면 그것을 높이 사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지요.

대학졸업후에 곧바로 귀국하셨습니까?

대학졸업후에는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인 미쓰비시사에 입사했어요. 미쓰비시사의 한국지사격인 조선광업소를 자원해서 발령받아 조사과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지요. 남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광산이라는 광산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덕분에 팔도강산을 두루두루 돌아보았지요. 그러다보니 한달중 20일은 외박을 하게 되었어요. 주로 광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조사작업을 했는데 땅속 깊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낙반 등의 사고위험률이 아주 높았고 죽을

中2때 세단뛰기서 13m12cm로 한국신기록 세운 스포츠 맨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이 지나고 8·15해방후 군정에서 일본인 소유였던 7~8개의 광산관리를 맡겼습니다. 한 1년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삼한광업회사, 삼성광업회사 등을 관리했지요.

최근까지 동방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었는데 임원들도 나이가 많아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질광물광상학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공부하셨고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졸업후 줄곧 이론을 실천하는 현장에 몸담아 오셨는데 회사 일외에 다른 공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초로 이 분야를 공부하신 대선배님은 일찍 작고하셔서 내가 더 알려지게 되었나봐요. 한국에서 두번째로 전공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사회활동도 꽤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대한지질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 학술이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한국자연과학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지요.

선생님, 머리는 염색을 하셨습니까? 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번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카락만큼은 삼단마냥 아주 까맣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날 아흔 다 된 노인네로 안봅니다. 내 생각에 어려서부터 계속 운동을 해왔고 젊어서는 광산조사한다고 전국토의 산들을 누비고 다녀서 이 시기에 건강을 미리 저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서도 골프, 당구 등을 치며 계속해서 체력을 유지했지요.

요즘에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둑과 소설로 소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식사는 세끼 제때에 꼭 챙겨 먹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으므로 고기, 생선 등은 혈액순환에 안좋다고 해서 안먹지요.

91년에 쓰러진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서 나다니지를 못해요. 거의 집안에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운동하고 삼국지같은 소설을 읽으며 소일하지요. 취미로 시작한 바둑

은 아마 초단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간지 오늘로 1백일이 됩니다. 작년에 금혼식을 했으니 반백년을 함께 했어요.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가고나니 더욱 그리워지는군요. 한때는 나 혼자만 남겨졌구나 해서 외로웠는데 장남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 적적함을 덜고 있어요. 3남2녀를 두었는데 모두 장성하여 제 갈 길 가고 있고 나도 젊은 날 열심히 후회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저 조용히 살다 가는 게 희망이지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원칙이랄까 어떠한 마음기짐으로 생활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하게 말할 것은 없고, 그저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왔지요. 남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잘 할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농담을 잘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나 의사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역정을 내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부르냐고 되물어워서 「젊은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그게 제 호칭이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내 주치의가 「젊은 오빠, 잘 가세요!」 하더군요.

끝으로 1994년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계의 여러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순리를 지켜야

「신년사」니 해서 크게 떠들만한 것도 없고 잘난 척 하는 것도 싫어 이런 청탁을 모두 거절해 왔지요. 나는 단지 과학기술자의 한사람으로 내 할 일을 다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착하게, 정직하게 생활했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 제 자리에서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삶 속에서 우러난 진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金 昭 延 <본지 객원기자>

1935년 일본 京都제대 지질광물광상학과 나와 전국광산 답사